

당신의 거울*

이희영

엔젤이 죽었다. 또 한 마리의 엔젤이 죽었다. 이로써 남은 엔젤은 단 두 마리뿐. 어항 속을 들여다본다. 열대어는 그 뾰족한 입을 어항 구석에 처박고 죽어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플라스틱 수초 사이를 유유히 헤엄치던 녀석이었다. 이름에 걸맞게 평온하고 사뿐히.

까만 열대어의 눈 위로 허영게 죽음이 내려앉았다. 나는 어항 가까이 다가가 죽은 녀석을 관찰한다. 엔젤의 꼬리지느러미가 아무렇게나 찢겨진 노트처럼 뜯겨있다. 두어 발자국 떨어져 어항을 둘러본다. 가로 1.2미터 세로 0.7미터 폭 7센티. 벽에 걸린 물속 세상은 평온하다. 남아 있는 두 마리의 엔젤과 네 마리의 수마트라 그리고 이름을 잊어버린 붉고 노란 유선형의 열대어들이 권태롭게 아가미를 빼꼼거린다. 마치 엔젤의 물어뜯긴 꼬리지느러미와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

죽은 고기를 어항에서 건져내는 건 남편의 몫이다. 그는 이번에도 죽은 엔젤을 건져내며 적잖게 실망할 것이다. 아이가 제 방에서 나온다. 졸린 눈을 비비적거리며 벽걸이 어항 앞으로 간다. 아이는 아직도 꿈을 꾸듯 물속 세상을 바라본다.

“엔젤 또 죽었어.”

아이가 구석에 죽어 있는 열대어를 가리키며 중얼거린다. 남편은 아이에게 살아 움직이는 것의 생명력을 보여주려 했는데 아이는 그로써 죽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죽음이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것들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얼굴이니까.

아이의 손가락이 툭툭 어항 유리를 두드린다. 살아 있는 녀석들이 아이를 알아보고는 모두 수면근처로 빠르게 몰려든다. 심드렁하게 죽은 엔젤을 보던 아이의 눈이 반짝 빛난다. 매일 아침 열대어 먹이를 주는 것은 아이의 몫이다. 이제 아이의 아침잠을 깨우는 것은 소리 없는 물고기 들이다. 아이가 서랍에서 먹이통을 꺼내 폴짝 소파 등받이로 올라간다. 6살 아이는 소파 등받이에 올라서고도 까치발을 해야 간신히 벽에 걸린 어항에 먹이를 줄 수 있다. 아이가 먹이를 흘뿌리자 어항 속 열대어들이 바쁘게 움직인다.

“진짜 죽었나봐. 밥 안 먹어.”

아이가 주방을 향해 소리친다. 이제 물고기의 죽음 앞에 처음처럼 놀라지도 슬퍼하지도 않는다. 벌써 다

셋 마리의 엔젤이 차례로 죽어나갔다. 마치 육상계주선수들이 손에서 손으로 baton을 넘기듯 사나흘에 한 번꼴로 엔젤은 서로가 서로에게 죽음을 넘겨주고 있다.

수마트라 네 마리가 재빠르게 먹이를 독점한다. 욕심이 많고 포악한 녀석들이다. 그나마 머리가 좋은 다른 어종들은 어항 바닥에 붙어 있다. 수마트라들이 미처 다 먹지 못하고 떨어뜨린 먹이를 기다리는 것이다. 뒤늦게 엔젤 두 마리가 천천히 헤엄쳐 와 남은 먹이 몇 알갱이를 겨우 입에 넣는다.

“빨리 와서 먹어. 그렇게 느리니까 자꾸 죽지.”

아이가 또 한 번 툭툭 어항 유리를 건드린다. 나는 어항 유리에 눌러 납작해진 아이의 코를 본다. 아이의 눌러진 코끝에 죽은 엔젤이 매달려 있다.

식탁에 앉은 아이가 입을 삐죽거리더니 숟가락으로 미역국을 휘휘 젓는다. 나는 아이를 향해 미간을 구긴다.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어린이 집에서 배웠다며. 아프리카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

며칠 전 아이가 들고 온 유니세프 홍보자료 속에 찍힌 앙상한 아이들이 떠오른다. 나는 어린이집에서 아이에게 들려 보낸 후원금 봉투에 삼 만원을 넣었다. 그리고 아이의 반찬 투정 앞에 빼만 남은 앙상한 물골로 카메라를 응시하던 커다란 눈의 아이들을 불러내고 또 불러냈다.

“엄마.”

숟가락으로 장난을 치던 아이가 고개를 든다. 나는 밥 위에 었어줄 김치를 잘게 찢는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살지 않잖아.”

아이의 동그란 눈을 한참동안 내려다본다. 이 까만 눈 속에 들어 있는 죽음은 지구 반대편의 기아도 거실 벽 어항 속의 죽음도 모두 같은 것일까. 두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그 무엇도 느낄 수 없는. 그래서 정작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 마치 가상 속세계의 일처럼. 아이가 체념한 듯 밥숟가락을 입에 넣는다.

“아빠는 언제와. 오늘도 안와?”

작은 입이 중얼거린다. 나는 그 입에 김치 조각을 넣어주며 글썽 라고 대답한다. 아이가 아빠는 언제까지 싸울 거냐고 또 묻는다. 나는 대답대신 벽에 걸린 달력을 본다. 이제 곧 새해가 다가 올 것이다. 언제까지 싸울 것이냐는 아이의 질문은 사실 내가 묻고 싶은 것이다.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승산도 없는 싸움을.

아이를 어린이집 버스에 태우고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는다. 뉴스 찾아 읽지 말고 댓글 같은 거 읽지 마. 언론이 뭐라 그러던 상관 말고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 받지 말고 그냥 평소대로 책 읽고 글 쓰고 아이랑 마음 편히 있어.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처음처럼 그의 머리의 붉은 띠를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이며 웃지도 않았다. 파업은 남편이 이야기 했던 것 보다 훨씬 길어졌고 내가 처음 예상 했던 것보다 훨씬 초조하고 위협하게 흘러갔다.

포털 사이트를 열고 일면 기사를 훑어본다. 정부의 장애인 복지예산 축소에 반발한 장애우 들이 거리로 나섰다. S기업의 유니폼을 입고도 S기업직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제대를 몇 달 앞둔 군 장병의 의문의 죽음이 실렸다. 나는 이 모든 헤드라인 기사를 지나친다. 역대 최장기 파업, 노조와 사측 위협하게 달리고 있는 파국열차. 사측 마지막 최후통첩 내일 오전 9시까지 업무 미 복귀 시 노조원 전원 중징계 강행. 전국에서 파업 참가자 노조원들 속속 업무 복귀. 기사 사이사이로 사진들이 보인다. 멈춰 있는 열차, 정지된 화물열차, 허연 입김을 내뿜으며 연착된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 붉은 띠를 두르고 서울광장에 모인 노조원들, 짐짓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 야 정치인들. 나는 마우스를 움직인다.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배때기 부른 귀족노조 새끼들. 다 잘라 버려야 돼. 너희들 없어도 일 할 사람은 널려있다.

로그인을 한다. 댓글 밑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컴퓨터 자판을 몇 번 두드리다 결국 지워버린다. 포털 사이트의 창을 닫으려는데 쪽지가 온다.

<지니의 오두막> 문이 잠겼네요. 2013년이 가기 전에 좋은 책 한권 소개 받고 싶은데. 조만간 오두막에 올려갈 수 있게 해 주세요.

나는 쪽지를 삭제했다. 포털 사이트의 창을 닫고 컴퓨터 전원을 끈다. 검은 모니터 위로 과국열차 최후통첩 중징계 복귀 등의 단어들 빛의 잔상처럼 어지러이 남아 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배때기 부른 귀족노조 새끼들이라는 댓글에 일일이 맞서지도, 노동조합을 옹호하는 청원 사이트에 서명을 하지도, 야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장문의 글을 남기지도 않는다. 그냥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만을 원한다. 이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남편이 말한 진실이 무엇이며 그 진실을 위한 싸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알고 싶지 않다. 그런 것을 안다고 해서 이해한다고 해서 무엇이 바뀌며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 수 없다. 수백 개의 댓글로도 수천 명의 서명으로도 수 만개의 촛불로도 바뀌지 않는다면 이젠 다만 그 싸움으로 인해 우리의 삶도 바뀌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냥 예전처럼. 평온하게 그것이 비록 비겁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너는 너만은 그러면 안 되잖아. 초취한 모습으로 돌아온 남편은 복귀라는 말에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뭐데 왜 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는 그만 진실 따위 그냥 지나가는 길고양이 밥으로나 던져 줘버려.

나는 방을 나와 거실을 서성인다. 새로 도배한 하얀 벽지, 거실의 원목 책장, 책장위에 빼곡히 꽂힌 책들, 새롭게 단 전등과 스위치, 책장위에 놓인 키 작은 초록의 화분들, 거실 벽에 걸린 사진과 그림. 그리고 책장을 마주보고 있는 벽걸이 어항. 그 속의 물고기들.

남편은 처음부터 벽걸이 어항을 마음에 들어 했다. 남편의 감탄에 집 주인이 말했다. 실례지만 지금 펴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제야 우리는 남자가 쓰고 있는 짙은 색의 안경을 주목했다. 아무도 그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혹시 벽걸이 어항 말씀이십니까. 남자가 되물었다. 남편이 당황하며 예라고 대답했다. 집주인이 성큼성큼 벽걸이 어항 앞에 섰다. 그의 거침없는 걸음걸이만 봐서는 앞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 멋지죠. 제가 설치했습니다. 남자는 손을 뻗어 어항을 매만졌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가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앞도 안 보이는 사람 집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말입니다. 그런데 다 보여요. 찰방 찰방 물소리로 다 볼 수 있어요. 집 주인의 주름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두 눈 멀쩡하다고 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눈이 멀었다고 모든 것이 전혀 안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는 이렇게 말하며 허허거렸다. 그의 눈은 언제부터 빛을 잃은 걸까. 집주인의 반백의 머리와 앙상한 팔이 그의 나이를 대략이나마 짐작케 했다. 우리는 조금 부산스럽게 집을 둘러보았다. 안방 좀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안방 화장실 좀 열어보겠습니다. 주방 좀 구경할게요. 작은 방 좀 보겠습니다. 남편은 집을 살피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때마다 집 주인은 대답대신 가끔씩 고개만 끄덕였다. 만약 이집을 계약하신다면 저 벽걸이 어항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현관까지 따라 나온 남자가 말했다. 남편은 예라고 대답했다.

물고기들이 튀어 오른다. 찰방 물소리가 난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가롭게 헤엄치는 열대어들을 바라본다. 다시 고개를 돌려 가지런한 책장을 바라보고, 초록의 화분들을 바라본다. 마지막으로 창밖의 앙상한 겨울나무들을 바라본다. 나는 옷깃을 여미었다. 남편은 틀렸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다. 싸늘한 창밖 풍경에 제 옷깃을 먼저 여미는 사람들과 나는 같다. 아니다 남편이 틀린 것이 아니다. 남편은 속은 것이다. 나도 나에게 속았으니까. 휴대전화가 울린다.

“건우애비 회사로 돌아간겨. 아직 아녀. 이 우라질놈이 에미 전화도 안 받고 이 추운 날 밖에서 뒷 하는 것이여. 내가 요즘 그 잘난 아들놈 때문에 가게에 앉아서 하루 종일 생전 안 보던 뉴스를 다 찾아본다. 티비 보니까 경찰들이 막 유리문도 다 깨부수고 사람들도 싹 잡아가던데 건우애비는 팬찮은 거냐? 하이고 요즘처럼 살기 팍팍할 때 월급 제때 나오면 그만이지 뉼 불만이 있다고 저리 대모 질이나 대모 질은. 그러다 찢리면 어찌려고 그러. 아니긴 뭐가 아녀. 높은 사람들 다 나와서 엄중 처벌이니 뭐니 하는데. 건우는 어린이집 갔냐. 지 애비는 안 찾고? 건우 생각해서라도 빨리 회사로 돌아가라 그러. 니들 이번에 집 산다고 무리해서 회사 대출까지 받지 않았냐.”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낮고 무거운 한숨 소리. 그렇습니다. 어머니 생각보다 저들이 쥐고 흔들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저는 여태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모를까요? 아마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말여. 105동 노인양반도 그러고 우리 과일가게에 오는 여편네들도 죄다 뉴스 보면서 빨갱이 새끼들이 대모한다고 막 욕하던데. 나야 무식해서 철도 민영화가 뭔지 수서발이 뭔지 설명해 줘도 모르겠고. 건우애비랑 사람들이 여편네들 말처럼 월급 몇 푼 올려 달라고 괜히 멀쩡한 사람들 오도 가도 못하게 기차 잡고 저러는 거냐? 욕먹을 짓 하고 있는겨?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럼 그건 아니겠지. 이 우라질놈의 여편네들 가게 와서 기껏 사과 몇 알 사가면서 뚫린 입이라고 어디 함부로 녀의 아들보고 빨갱이라 지랄들이여 지랄들은. 다음에 또 그랬단 바라 뚫린 입구녕에 썩은 사과를 죄다 쳐 넣을겨..... 그나저나 밖에 날씨가 보통 추운 게 아닌데 옷은 두껍게 껴입고 나갔냐? 하늘이 꾸물거리는 꼴을 보니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다.”

창밖을 본다. 어두운 구름이 건물 머리위에 낮게 내려앉아있다. 아닙니다. 어머니 그깟 월급 몇 푼 더 받자고 밖으로 나간 거 아닙니다. 어머니. 차라리 애비가 그런 이유로 뛰쳐나갔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더 편하겠습시다.

거실을 서성이다 책 한권을 빼내어 소파에 앉는다. 보름이 넘도록 같은 책의 같은 곳을 읽는다. 아니 그 저 손에 들고 있다. 접어 두었던 페이지를 펼친다.

진리가 다스리는 평화를 어지럽히는 것이 죄라면, 진리가 파괴될 때 평화 속에 머물러 있는 것도 죄라는 것은 명백하지 않은가?

당신이 그랬잖아. 부조리 앞에 가만히 있는 것도 죄라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뭐가 무서운데. 나 어떻게 되지 않아. 여기까지 다 함께 왔어. 지금 나 혼자만 돌아가라는 건 말도 안 돼.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다시 책을 덮는다.

파스칼은 틀렸다. 설령 진리가 파괴되었다 해도 자신에게 평화가 남아 있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그 평화를 택하는 죄를 범할 것이다. 그가 믿었던 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가. 파스칼도 베드로와 유다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정령 죄가 될까. 묻고 싶다. 그가 말한 진리는 무엇일까. 이제 세상의 진리는 힘이다. 힘 있는 자의 말이 곧 진리가 된다. 그럼 말해 보라. 우리는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진리가 다스리는 평화를 어지럽히는 죄인가. 파괴된 진리 앞에서도 침묵을 지키는 죄인가.

책은 다시 책장에 꽂힌다. 처음부터 불명확 한 것은 아니었다. 무엇이 파괴되었는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명확히 보여 한 치의 의심도 망설임도 없었다. 허나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했던 모든 것들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신념이라는 시각이 흐려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도 많은 경험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어설픈 이성의 시각이었을지도, 알량한 지식의 시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한쪽 눈을 가린 반쪽의 시각이었을지도. 저들이 휘두르는 칼이 생각보다 날카롭고 위협적이어서 나는 무엇에 놀란 거북이 마냥 자꾸 안으로 안으로 숨어들었다.

도대체 무엇을 걱정 하는 거야. 우리는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 오래전에 이미 사측에 파업을 예고했고, 업무에 필요한 필수 유지 보수 인원은 모두 남겨뒀어. 어떤 법을 갖다 대도 노조의 쟁의가 법에 저촉되거나 문제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절대 불법파업이 아니야.

왜 불법파업이 아니야. 저들이 불법이라잖아. 당신네들이 아무리 옳다고 외치면 뭐해 칼자루 쥐고 흔드는 저들이 불법이라면 불법이 되는 거잖아. 저렇게 미친 듯이 휘두르고 있는 칼에 잘못 맞아 다치기라도 하면 과연 누가 책임질 건데. 당신들이 믿는 컴퓨터 자판 여론이? 일찌감치 눈 가린 언론이? 우리도 그냥 눈 가리고 귀 막고 살면 안 돼?

너 이렇지 않았잖아.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누구 보다 네가 가장 많이 응원해야 하잖아.

그래 이렇지 않았다. 한 번도 삶의 기저가 흔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뼈거덕 거리는 삶 위에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치사하고 더럽더라도 그 위에서 넘어지지 않게 중심 잡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

고개를 돌려 어항 속 죽어있는 엔젤을 본다. 까만 눈에만 어렸던 허연 죽음이 이미 온 몸을 잠식해 갔다. 물속에서 점점이 흩어지는 죽음. 굳이 건져내지 않더라도 며칠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수마트라 두 마리가 그 주위를 맴돈다. 녀석들은 언제나 썩썩하다. 다른 녀석들의 상태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왜 엔젤 너희들만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거야. 다른 녀석들 다 멀쩡한데 왜 유독 너희만 자꾸 죽어나가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거야. 수족관 직원은 생명력 강하고 온순한 편이라 초보자들도 쉽게 키울 수 있다고 했다. 직원의 말은 거짓이었다. 아니면 수족관 직원도 사실 엔젤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아닐까. 무언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말 못하는 생물의 특성이야 오죽할까.

문자가 왔다. 낯선 번호다. 긴장한다. 하지만 다행히 사측에서 보낸 회유를 가장한 협박 문자는 아니다. 안녕하세요. **출판사입니다. 요즘 블로그 안하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희 쪽 제안은 생각해 보고 계신가해서 연락드려 봅니다.

답장 버튼을 누르려다 그냥 삭제해 버린다. 나도 모르게 자꾸 피식 피식 허탈한 웃음이 나온다. 두 손으로 마른세수를 하다 이내 얼굴을 두 손에 묻는다. 마치 불에 덴 듯 얼굴이 활활 타올라 참을 수가 없다.

유명 포털 사이트에 블로그를 시작한 것은 삼년 전이었다. 아이를 처음 어린이 집에 보내고 그동안 육아에 지쳐 읽지 못한 책들을 마음껏 읽었다. 블로그는 내가 읽은 책들의 기억 저장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가진 나만의 시간을 만끽하기위한 기록이었다. 나는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간단한 서평을 쓰기 시작했다. 어떠한 목표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글뿐만이 아닌 책의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를 함께 저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주저 없이 블로그 개정을 만들었다. 나의 서평들은 굳이 비공개로 하지 않았다. 도심에 우뚝 선 랜드 마크 같은 유명 블로그들 속에서 내 이야기들은 지리산 어느 산골짜기에 지어진 초라한 오두막이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그것들을 읽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껏 오두막을 꾸몄다. 틀에 박힌 서평보다 내 경험과 감정과 느낌에 충실한 서평들을 기록해 나갔다. 어떤 주제나 테마에 구속되지 않고 마구잡이로 손에 잡히는 대로 마음 가는대로 책을 읽어 나갔다. 김연수와 박민규를 읽고 에릭프롬을 읽는다. 모옌과 위화를 읽다. 제레미 다이아몬드와 리처드 도킨스를 읽는다. 프로이드와 융을 읽고 플라톤과 아우렐리우스를 읽고 고프리치와 진중권을 읽고 발자크와 골딩을 다자이 오사무와 술체니친을 샌델과 마르크스를 읽는다. 그것들의 기록들이 제법 쌓일 때쯤 소수의 방문객이 내 오두막을 다녀가기 시작했다. 김혜진의 이름을 딴 지니의 오두막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오두막에 놀러온 이웃들과 책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웠다. 책과 담을 쌓고 지내다 오두막을 둘러보고 독서를 시작했다는 사람들과,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를 때 내 오두막의 다양한 책들과 서평이 큰 나침반 역할을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고는 했다. 그렇게 이년여의 시간이 지나는데 놀랍게도 내 오두막은 포털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세 번이나 소개되었다. 메인 화면의 노출은 산골의 작은 오두막을 단번에 대 도심 한가운데로 옮겨놓는 힘을 발휘했다. 하루 방문객의 숫자 앞에 또 하나의 수가 그리고 또 하나의 수가 덧붙여졌다. 그로인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몇 배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찬사는 그 부작용을 덮기에 충분하고도 넘쳤다. 그럴수록 나의 서평은 과감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책의 이런 저런 문구를 인용하여 현 사회를 비판하고 정치를 비웃었다. 부를 독점하는 기득권에 돌을 던지고 스스로 눈을 감은 언론을 향해 손가락질 했다. 힘의 권력에 의해 이리 저리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의 약한 심리를 꼬집고 반성을 유도했다. 내 글을 읽는 이들에게 스스로 자아비판을 강요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이런 글에 공감하고 박수를 보낼수록 나의 서평을 위한 책 읽기는 계속 되었다. 그리고 올해 초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한통의 쪽지를 받았다. 그는 당장은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자신을 모 출판사의 판촉 담당자라 소개했고 원한다면 자신의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무상으로 지급 할 의향이 있으니 내 오두막에 전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의를 했다. 만약 그에 따른 책의 판매량 증가에 대한 약간의 금전적 지급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로 글은 마무리 되었다.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지

만 거절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나의 지적유회를 그런 식으로 팔아넘기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내 오두막을 찾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싶었다. 나는 그렇게 무언가에 타협하지 않는 내 자신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다. 그것이야 말로 나의 지식과 이성에서 나온 가장 순수한 힘이라 믿었다. 그 일이 있는 후 쪽지와 메일로 날아드는 은밀한 물밑 연락들은 계속되었다. 내 오두막에 광고판을 설치하고 싶다는 사람에서부터 자비로 책을 출판한 무명작가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 또한 다양했다. 그럴 때 마다 나는 정중히 그들 앞에서 내 오두막에 걸쇠를 걸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런 관심까지 불쾌한 것은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나는 즐기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세상의 모든 책들이 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쯤 한 출판사로 부터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은근한 물밑 연락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출판사와 이름을 당당히 밝혔다. 지니의 오두막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커다란 지구가 자전축이 아닌 나와 나의 오두막을 중심으로 천천히 돌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문밖에서 번호 키 누르는 소리가 난다. 남편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돌아왔다. 나는 거실에 멍 하니 서서 그를 바라본다. 며칠 전 보다 훨씬 덩수룩해진 머리에 면도조차 제대로 못했는지 코밑과 턱밑이 거뭇거뭇하다. 남편역시 충혈 되고 움푹 파인 눈으로 나를 본다. 그가 밖에서부터 몰고 온 차가운 냉기가 거실에 감돈다. 나의 시선이 남편의 얼굴에서 그의 손에 쥐어 있는 투쟁이라는 붉은 종이로 옮겨간다.

“오늘 저녁에 모두 서울로 올라가.”

남편의 목소리는 마치 사막에 부는 모래바람처럼 건조하고 갈라져 있다. 그는 무엇을 위해 이리도 목이 터져라 외쳐왔던 것일까. 남편은 자신의 잠긴 목소리가 당황되었는지 헛기침으로 자꾸만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럴수록 제멋대로 튀어나오는 그의 쉼 목소리가 안타까웠다. 미안해 함께 외쳐주지 못해서. 나는 전기 포트에 물을 끓인다.

“아마 이번 상경이 마지막이 될 거야. 파업 곧 끝날 것 같아.”

선반 위에서 커피를 내리던 손이 멈칫한다. 이상한 기분이다. 그렇게 기다리고 듣기 원했던 말이었는데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생각처럼 나를 기쁘게도 안심시키지도 못했다.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뺨 뚫리지 못하고 찢겨져 나온다. 나는 커피를 탄다. 남편이 다가와 내 손에 들려 있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는 나를 방으로 이끈다. 그는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한 사람처럼 거칠고 성급하게 내 안으로 파고든다. 그런 남편의 몸에서는 낯선 냄새가 났다. 눅눅한 담배냄새 땀 냄새 차가운 겨울바람 냄새 많은 사람들이 뒤섞인 냄새 합성의 냄새 두려움의 냄새. 이것들은 낯설지만 아주 또렷하고 선명하게 느껴졌다.

내가 그동안 관념적으로만 상상했던 냄새들.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인식했던 냄새들. 남편은 그런 세상의 흩뿌려진 냄새를 모아 정확하게 내 앞에 들이밀었다.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비참하고 잔인한 냄새였지만 또 그만큼 강하고 질겼다. 나는 남편을 힘껏 끌어안았다. 그는 내 위에서 힘없이 허물어진다.

“너무 빨리 끝났네.”

남편은 이렇게 말하고는 웃었다.

“미안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버려서. 그런데 더 이상 못 버티. 정말 멋지게 끝내고 싶었는데 우리가 이기는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남편의 허탈한 웃음소리는 그가 몰고 온 냉기만큼이나 차가웠다. 나는 그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다. 고생했어. 남편의 등이 조금씩 흔들린다. 당신의 선택이 내게 너무 많은 것을 보여 주었어. 아니 일깨워 주었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당신으로 하여금 내 참모습에 눈뜨게 한 것. 그것이 생각보다 흉하고 야비해서 보기 싫었고 인정하기 싫었어. 그 맨 얼굴을 보기가 참으로 어려웠어. 그래서 그 분노가 고스란히 당신에게로 향했던 거야. 그래 그것은 불안을 가장한 분노였어. 불안을 가장한 분노. 내 분노가 당신을 참 외롭게 했어. 나는 아주 오랫동안 남편의 등을 어루만졌다.

잠든 그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밖으로 나왔다. 나는 작은 방으로가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누른다. 컴퓨터가

부팅이 되는 짧은 시간동안 많은 말과 많은 단어 그리고 많은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뒤엉킨다. 피식 웃음을 나온다. 아직도 완전하게 버리지 못했구나. 로그인을 하고 오두막에 들어간다. 그곳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소개한 책과 나의 글이 있었다. 그 책은 니체의 책이었고 내 서평은 이렇게 끝이 나 있었다.

끝으로 니체는 말하고 있다. 많은 것을 보려면 자기 자신을 놓아버릴 줄 알아야 하며 인식하는 자로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면 겉으로 드러난 근거 이상의 것을 볼 수 없다고..... 우리는 과연 진실과 마주하기 위해 어디까지 자신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가끔은 내 잘못된 사상과 집착이 나의 눈을 멀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

전혀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서평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에 또 다시 웃음이 나왔다. 나는 오두막을 정리하고 문을 닫는다. 정리라고 해 봤자 작은 쪽지 하나 남기는 것뿐이지만.

제 자신을 조금 놓아주기 위해 오두막의 문은 닫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을 닫고 컴퓨터를 끈다. 이제 곧 한해가 끝이 난다. 남편의 과업도 끝이 나고, 나의 서평쓰기도 끝이 난다. 끝이 난다는 것은 결코 사라지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나는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온다. 뜰채를 들고 벽걸이 어항 앞으로 간다. 한 번도 해 본적 없지만 이번만큼은 죽은 엔젤을 내 손으로 꺼내야 한다. 남편에게 죽어있는 녀석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소리 나지 않게 천천히 벽걸이 어항의 덮개를 열고 뜰채를 집어넣는다. 고요했던 물속이 금세 아수라장이 된다. 몇 번의 어설픈 손질 끝에 반쯤 남아 있는 엔젤을 건져냈다. 시계를 본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남자는 나를 기억했다.

“꽤 여러 마리 사가셨잖아요.”

나는 대형 수족관에서 헤엄치고 있는 수많은 열대어들을 본다. 사람손톱만한 것들에서 팔뚝만한 대형 어종까지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 다양하다. 나는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엔젤들 앞으로 간다. 수십 마리의 엔젤들이 천천히 떼를 지어 헤엄치는 모습이 사뭇 장관을 연출한다. 한두 마리 있었을 때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모습이다. 몸에 비해 크고 화려한 꼬리지느러미를 천천히 흔들며 헤엄치는 모습은 왜 이까만 물고기에게 엔젤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납득시키기에 충분했다. 남자가 다가왔다.

“지난번에 엔젤도 사가셨죠?”

“두 마리 남았어요.”

남자가 그럴 리 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인다. 나는 내심 원망의 눈초리로 남자를 바라본다.

“초보자들도 키우기 쉽다고 해서 일곱 마리나 사갔는데, 차례차례 죽어버렸어요.”

“혹시 환경. 그러니까 수질이나 여과기에 문제는 없나요?”

“아니요 그랬다면 벌써 다른 애들도 죽었겠죠. 다른 애들은 멀쩡해요. 유독 애네만 그래요. 생명력이 강하다고 하셨는데 아닌 것 같네요.”

나는 수족관에 있는 녀석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남자가 내 손 끝에 헤엄치고 있는 엔젤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어항에서 여러 종류의 열대어를 키우시니까 유독 한 어종만 죽어 나가면 환경적인 영향보다 물고기의 문제로 단정 지으세요.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녀석들의 세계도 우리와 같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있다고 해서 꼭 나까지 잘 살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겉으로는 다 똑같은 환경에 있는 것 같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구요. 지금 녀석들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결코 녀석들이 약해서 죽어나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남자는 이렇게 말하고는 내게 초록색의 작은 플라스틱 병을 건넸다.

“미생물에 조금 민감한 녀석이에요. 물속에 미생물과 박테리아가 너무 적으면 녀석들이 힘들어해요. 어항에 두 컵 정도 넣어줘 보세요. 부분 환수하시고는 한 컵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래도 죽으면 또 오세요.”

나는 남자가 건네준 플라스틱 병을 받아 쥘다. 이상스러우리만큼 녀석들만 유난스럽다 생각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녀석들을 유난스럽게 만든 것인지도 몰랐다.

“그런데.”

내가 다시 입을 열자 남자가 미소로 답한다.

“만약 수질에 문제가 있다면 한꺼번에 다 죽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상하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며칠 간격으로 죽어요. 마치 죽음에 순번을 정한 애들처럼.”

남자는 내가 말한 죽음에 순번을 정한다는 말이 섬뜩하면서도 꽤 시적이라며 웃었다.

“엔젤이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치 순번을 정해 놓은 듯 그렇게 죽어나가요. 그것이 남은 애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문제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래서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손님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되었네요.”

“단점이에요?”

“한꺼번에 다 죽지 않고 한 마리씩 죽어나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못해요. 그냥 죽은 애가 약하거나 유독 적응을 못해서 죽은 줄 알고 한 녀석의 문제로만 생각하죠. 그러다 며칠 만에 또 죽고 또 죽고 제법 많은 아이들이 죽어 나가면 그때서야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고 무언가 조치를 취하려 해요.”

여기까지 말한 남자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그땀 이미 났었죠. 너무 많은 애들이 죽었으니까. 라고 덧 붙였다. 남자의 얼굴에 마치 당신처럼 이라 쓰여 있어 나는 고개를 돌렸다. 남자가 맨 처음 말한 물속 세상과 우리의 세상이 다르지 않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런 얘기는 미리 해 주시면 좋았잖아요.”

이번에도 나는 남자에게 원망을 담아 말했다.

“죄송합니다. 잘 키워보시겠다고 데려가는데 그 앞에서 죽는 애기부터 꺼내기가 어쩐지 조금…….”

남자는 난처한 듯 말끝을 흐렸다. 나는 웃으며 손가락으로 물속의 엔젤을 가리켰다. 남자가 뜰채를 들고 수족관 덮개를 연다. 나는 남자가 건네준 투명 봉지 속에 있는 다섯 마리의 엔젤을 본다.

“오늘 서울에서 마지막 집회 끝나면 늦어도 내일 아침 복귀명령 떨어 질 거야.”

남편이 점퍼를 입으며 말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투쟁을 집어 들어 그에게 건넸다. 그가 내 손에 들려 있는 투쟁을 본다. 좀 더 일찍 건네주어야 했던 것이다.

“나한테 실망했지?”

내가 물었다. 남편이 고개를 가로젓는다.

“아니. 사실 나도 잘못되지 않을까 내심 무서웠는데 뭘.”

남편이 내 손에 있는 투쟁을 받아 쥐고는 거실로 나간다. 아이가 아빠의 외출복장에 금세 울음을 터트린다. 남편은 그런 아이를 품에 안고는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라며 새끼손가락을 펴 보인다. 아이가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제 작은 손가락을 건다.

“그럼 아빠가 싸움에서 이긴 거야?”

아이가 남편을 올려다보며 묻는다.

“응 이길 거야.”

남편이 대답한다. 아이는 아빠의 말에 안심한 듯 눈물 맺힌 눈으로 환하게 웃는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잡고 어항 앞으로 간다.

“아빠 엔젤이 살아났어.”

남편의 눈이 빠르게 어항 이곳저곳을 살핀다. 어항 속에는 일곱 마리의 엔젤이 플라스틱 수초사이를 유유히 헤엄치고 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문제를 인식하고 발견했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허나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다. 어쩌면 남편의 삶의 투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의 투쟁도 역시.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이는 이 세상도 알고 보면 무수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투쟁의 연속이 아닐까. 다만 때로는 방관으로 또는 외면으로 모른 척 할 뿐이지 실로 많은 사람들이 기우뚱 거리는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오늘도 알 수 없는 저들과 싸우고 있다.

“이제 진짜로 잘 키워 보려고.”

나는 남편을 보며 미소 짓는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문을 나선다, 아직 못 다한 말들이 겨울 바람에 실려 허공에 흩어진다.